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스마트화

익산시,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구축·주차 시스템 적용

익산시가 익산국가산단의 주요 업종을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근로환경개선 및 지원시설 확충, 도로 및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의 개선확충을 적극 추진한다.

더불어 노후산단 이미지에서 벗어나 스마트한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범죄 예방 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구축, 스마트 주차 시스템 적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스마트 가로등은 주변의 밝기나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조도와 동작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밝기를 자체적으로 조절해주는 것은 물론, 주변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해 주는 똑똑한 가로등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스마트 가로등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시는 이를 재생사업을 통해 익산국가산단에 도입해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스마트 가로등은 LED조명을 사용하여 기존 조명에 비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으며 여기에 각종 센서를 탑재할 수 있어 주변 소음이나 미세먼지, 동작 감지가 가능하다. 또한 이를 활용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날씨가 나뉠 수 상황을 알려줄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가로등은 범죄 예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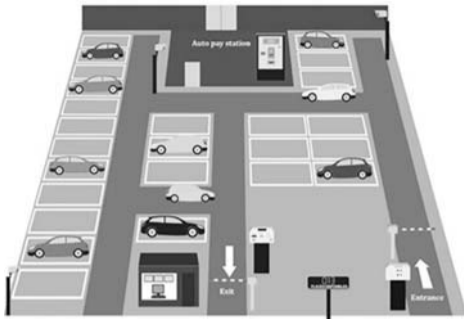
활용도가 높다. 앱을 설치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전원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와 경찰 상황실에 긴급구조 요청이 돼 가까운 곳을 순찰중인 경찰차가 출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1974년 조성된 익산국가산단은 공영 주차공간이 전무하여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아 보행자 통행 및 물류 수송에 어려움이 겪어왔다. 이에 시는 재생사업으로 일부 지역을 매입해 주차장을 설치하고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스마트 주차서비스는 단계적 계획으로 노외주차장별 총 주차면수에서 여유 주차면수 등의 주차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주차정보를 게시하고, 향후 시 단위 공공데이터관리포털(가칭) 구축 시 산업단지 내 주차현황을 제공한다.

장기적 계획으로는 익산시 공공주차장 위치기반 모바일서비스 구축 시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과 연동 추진으로 주차 권리를 도모하고 주차장 진출입구에 무인자동화시스템 설치 운영됨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는 주력 제조업의 수출 감소 등 경쟁력 약화와 생산성이 감소되고 있어 생산혁신 등을 위한



그림으로 표현한 스마트 주차장 모습.

새로운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국가산단 내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스마트공장 도입·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구축완료 기업분석결과 생산성 30% 증가, 불량률 45% 감소, 원가 15% 절감, 고용 기업당 2.2명 증가 등 성과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근로자 처우개선 및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생산현장의 위험요소 분석을 통해 근로환경의 안정성 제고를 할 수 있다.

시에서는 국가산단 내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시범 스마트 기업 거점 구축을 시작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국가산단 재생사업 스마트화는 노후산단의 안전 확보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편의시설 확충으로 근로자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혁신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순 조성 과도 연계해 산단 내 부족했던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산업단지는 물론 주변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하는 등의 역할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국가산단 단지가 재생사업을 통해 낡고 칙칙한 이미지를 탈피하여 스마트한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게 되고,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국 대학생 논문경진대회 대상

군산대 융합공학과 학생들이

군산대학교(총장 광병선)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학생들이 전국 대학생논문경진대회에서 연속 대상을 수상하고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기량을 선보여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군산대 재학생들은 최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2018 한국정보기술학회 대학생논문경진대회에서 지난 춘계 경진대회에 이어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하고 다수의 상을 휩쓸었다.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학과장인 정동원 교수는 "이번 성과는 학생들과 교수진이 하나가 되어 노

력한 결과로 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융합교육이 맺은 결실이다"며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는 PRIME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 창의 융합형과 실무형 인재양성에 필요한 다양한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멋진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표로 하고 '소통, 융합, 공유' 그리고 '우리'를 캐치프레이즈로 밝고 건강한 학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는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익산시, 금강 중심으로 수상관광 개발 협력

익산시를 비롯 논산, 서천, 부여군이 참여하는 금강수상관광생발전협의회가 7월 익산시청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올 한해 협의회 사업과 예산을 결산하는 등 향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금강을 따라 산재한 문화관광자원과 EHV어사업의 연계 활용방안 관련 우수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금강권 관광자원 팸투어 및 수상관광자원 공동 정책워크숍,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 협의회 차원의 노력

을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협의회 회장인 정현을 익산시장은 환영사에서 "정부의 사업 방향과 정책 방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정부 정책에 맞게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등 시·군간 협의회 차원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미래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처음 만난 단체장들은 금강수상관광분야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적 현안문제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로 협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상생발전과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찾아가는 현장행정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214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익산시 주얼팰리스 등을 방문해 운영사항 등을 점검하는 현장행정을 펼쳤다.

최고의 귀금속 전시판매장으로 65여개 업체가 입점하여 세련된 액세서리부터 주얼리까지 보석제품을 판매

하며 보석의 도시 익산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와 전북디자인센터는 주얼리기업의 동반자로서 신속한 기업 지원 및 창조적 기술선도로 주얼리 산업의 글로벌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패션주얼리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석의 도시 익산의 명성을 부활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어린이 안전도시

캠페인 실시... 적극 홍보

군산시가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실종·유괴·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등 어린이 대상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청 및 경찰서, 교육지원청, 서부야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여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에 참여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주시는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항상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국토교통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선정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지난 6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18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의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지역은 100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군산상권을 대표했던 영동상가로 총 사업비 2억4천만원(국비 1억2천만원)을 확보해 침체된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영동상가 소규모 재생사업'은 차 없는 거리 특성을 살려 피크닉 테이블이 갖춰진 노천카페를 조성하여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상가 골목길 진입

로 구간의 경관조명을 개선하여 야간에도 마음 놓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계절별로 방문객들을 위한 축제를 기획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며 누구나 공연할 수 있는 소규모 버스킹 공간도 마련하여 문화 예술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영동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에 하수관거 개선사업과 도시가스관 설치공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음식점 업종 전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